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스포츠외교

최 승 호*

세 번의 도전 끝에 우리나라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였다. 2003년 7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평창의 유치노력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좌절된 바 있고, 그 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터라 감회가 새롭다.

당시 제1차 투표에서 51:40으로 밴쿠버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를 통해 1차에서 탈락한 잘츠부르크 지지표 16표가 모두 밴쿠버로 가버렸기 때문에 평창이 아깝게 패배했던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압도적인 득표로 유치에 성공한 것이 무엇보다 반갑다.

2002년 여름 주 카자흐스탄 대사직을 마치고 귀임발령을 예상하고 있던 무렵이라고 기억한다. 서울에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을 의향이 없느냐는 제안이 왔다.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 때가 2002월드컵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해 6월15일 주 카자흐스탄 터키대사가 나를 위한 송별만찬을 주선하면서, 미국대사 스페인대사, 이태리대사 등을

같이 초청하여주었다. 특히 한국, 미국, 터키는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였기에 단연 월드컵 얘기가 만찬의 화제였고, 한국과 터키 내에서 월드컵이 대단한 사회적 관심사로 운위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귀임발령에 따라 8월 말 귀국하게 되어 가까운 선배님들과 상의를 해보니,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심스러워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요는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기반이 약하고 더욱이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동계올림픽은 적절한 강설량 등 기후조건과 산악 지형 등이 받쳐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또 그 당시 외교통상부가 모든 재외공관을 포함하여 부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치노력을 펼쳐오던 BIE박람회 유치문제와 상충되기때문에 올림픽유치 가능성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또 막말로 유치실패시에는 고생만 실컷 하고 유치실패의 오명만 뒤

* (재)한-아랍소사이터티 사무총장, 전 주 이집트 대사

집어쓰게 될 것이라고도 했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선거 그 다음 해에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웬만한 지역의 공관장들을 모조리 교체할 터인데 그 후에는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상당히 고심하였으나,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하는 심정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으로 욕먹을 것 겁내어 안한다고 해서야 떼뗄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심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던 공로명 전 외무장관께서 유치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88 올림픽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한 수준이지만 스키에 대한 개인적 취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훗날 공로명 전 장관께서도 2002년 10월 강원도 지사로부터 유치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았을 때에 이를 바로 사양하였으나 11월에 다시 간곡히 부탁을 해 와서 수락했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사양할 경우, 유치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셨다. 또 빙상경기도 제법 좋아하였다고 하시면서 경기중학교 재학시에 전국체전 스케이팅경기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고 하시었다. 역시 비슷한 심리과정을 거치신 것이 아닌가 한다.

유치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조선일보 기사를 지냈던 대학교 후배가 국내언론 홍보요원으로 같이 일했는데, 그가 “공로명(경기중학교), 제1회 전국체전 스피드스케이팅 빙상경기종목 중등부 우승”이

라는 1946년도의 낡은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왔기에 이를 공장관계 보여드렸더니 반기면서 즐거워하시었다.(경기장 모습을 보니 그냥 뽕뽕 얼어붙은 한강얼음판 위에 대회본부로 사용하는 텐트가 쳐져있고 그 앞의 얼어붙은 강이 바로 경기장 트랙이었다. 오늘날의 빙상경기장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나의 개인적 취향으로 말하자면, 동계스포츠 종목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나라가 1988년 하계올림픽을 치루던 당시 주 캐나다대사관에 근무하였었는데, 그 때 캐나다에서 경험한 겨울 스포츠가 대단히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캐나다 이후에 근무하게 된 체코에서도 스키를 즐겼고, 당시 체코에 고등학교 과정의 인터내셔널스쿨이 없었기에 큰아이를 비엔나의 국제학교로 취학시켰던 사유로 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등 세계적인 명소로 스키여행을 자주 가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동계스포츠가 매우 스타일리쉬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터에 온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매우 좋은 스포츠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설산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리프트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면서 온갖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각설하고, 국내 언론들은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 따라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하게 되는 여섯 번째 국가가 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나아가 미국도 아직 4대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회유치 마다 특별한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보아 4대 스포츠 제전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고 본다.

- 1988년 하계올림픽: 냉전체제하에서 동서화합 실현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 제시
- 2002년 월드컵: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 제시와 지역협력의 모델리티 제시
- 2011년 세계육상대회: 세계화의 맥락 하에서 남북화합과 폭넓은 동참 의장 제시
- 2018년 동계올림픽: 한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게 될 문화의 장 제시

먼저 88하계올림픽을 보자.

사실 88올림픽 이전에 한국은 세계스포츠대회를 치른 적이 없다. 1971년 10월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에 태릉국제사격장이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8년에 치루어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사실상 최초의 세계스포츠대회였다. 이 대회를 한국이 유치한 1974년 9월의 세계사격연맹총회는 북한의 방해공작으로 정치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은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한국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치른 바로 그 이듬해에 박정희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하계올림픽 유치방침이 1979년

10월8일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당시 하계올림픽 유치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과시하고 공산권 및 비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 여건을 확대하자는 것이 중요목표로 제기되었던 바이다. 동 선포 후 3주도 되지 않아 박 대통령 시해되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은 1988하계올림픽을 유치하였고, 더욱이 매우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88올림픽의 국제정치적 함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동서냉전과 체제대결에 따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및 1984년 LA올림픽의 흠결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씻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에 논의를 생략한다.

다만, 88올림픽이 공산권 몰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믿기에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 1989년 동구공산정권 붕괴 직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동구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공관을 설치하였다. 캐나다에서 88올림픽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바로 체코로 부임하여 대사관을 창설하고 그 곳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들었던 이야기이다. 요지는 이러하다.

- 88올림픽 이전에는 한국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한국이 발전했다는 말들을 흔히 단편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체제 선전의 측면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고, 대중들은 대체로 반신반의하는 정도였다.
-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국이 빈곤하고, 깡패 같은 군사독재 체제 아래서

-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실상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생각했다.
-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서도 별반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 한국도 북한과 오십보 백보 아니겠는가. 좌우지간 코리아라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저 그렇다고 생각했다.
 - 그러던 터에 TV에 비친 88올림픽 현장과 시민생활의 모습은 환상적이고 놀라웠으며 문자 그대로 머릿속을 강타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왔다.
 - 아울러 공산체제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국민들을 기만해왔는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충격이었고 공산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켰다.
 -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는 제2차대전 이전의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유럽의 기술강국, 문화강국, 경제부국이었던 역사에 비추어 공산화 이후 너무나 퇴보해버린 것을 실감하였다.

이로부터 10년 후 부임한 카자흐스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1999년 9월 카자흐스탄에 부임했을 때 고려인들을 포함하여 그 곳 사람들에게 필자가 유심히 물어본 것 중 하나가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어떻게 다가왔느냐는 것이었다. 절대다수의 대답은 위의 사례와 비슷하였다. 고려인 젊은이들은 학교다닐 때 상당히 무시당했다 하고, 교내에 고려인 학생들은 서로 모른척 하고 지냈으며, 교내에 고려인학생친목단체라는 것이 없었는데 88올림픽을 계기로 대학내에서 고려인들 동아리가 갑자기 결성되고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이었다. 민족적 위신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려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쯤은 감동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으며, 특히 88올림픽 당시 중장년층이던 고려인 중에 TV에 비친 한국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오늘날 카자흐스탄 상원의원으로서 그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인 고려인 최유리씨는 1987년 소련권투코치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이 오늘날 재벌그룹을 형성하게 된 바탕이 되었다.

88올림픽은 그러한 엄청난 정치적 함의를 지닌 스포츠행사였다.

그 후의 2002년 월드컵경기는 동서냉전체제가 극복된 이후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스포츠행사였다. 이미 동서냉전체제는 무너지고 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88올림픽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스포츠행사였다.

소위 ‘붉은 악마’로 명명한 일종의 문화 아이콘을 내세운 대규모 거리 응원을 통해 한국인의 강한 집단 응집력과 단결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역동적인 발전, 그리고 소위 ‘IMF 사태’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우리의 역동성과 결집력의 동일한 연장선상의 현상임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일종의 신명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역동성의 경험을 나누었다.

2002월드컵경기의 또 한 가지 특이점은 한일공동개최라는 지금까지 국제사회

에서 실현된 적이 없는 특별한 모델러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국제스포츠대회를 조직하는 전례가 될 것이다. 공동개최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스포츠행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로 인해 웬만한 나라는 스포츠행사를 유치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지역적, 대륙별 순환개최에 대한 기대와 명분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수 개국이 공동개최를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여름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212개국으로부터 6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한 대회가 되었다. 전통적인 육상강국 아프리카와 캐리비언 지역국 선수들의 발군의 성적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고, 국제관계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들 소국들에게 환회의 장을 마련해주었다는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로서는 메달을 단 한 개도 거머쥐지 못함으로써 주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렇듯 약소국들의 ‘게임의 장’이 마련되어 그들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국에 쏠렸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국제외교에 있어서 의미있는 봉사를 한 것임에 분명하다.

오늘날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적 연관된 가치를 지닌 보편화되고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문화현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정보화라는 사회적 특성의 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여가

증대와 생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소외, 운동부족, 환경오염, 스트레스 증가 등 부정적인 현상도 동반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건강을 위한 신체적 운동욕구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의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8년의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계에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

88하계올림픽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스포츠외교의 장이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이제는 문화적 성격이 강한 스포츠외교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정책은 한 마디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익을 창달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이다. 그런데 국익의 한 요소로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바,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현대의 외교는 일반 대중들의 호불호에 크게 영향 받는다. 즉 공공외교의 장이 존재하며, 공공외교의 성공은 국민들의 이념, 문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닮고 싶은 라이프스타일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스포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흔히 산악스키와 해양스쿠버다이빙이 꼽힌다고 한다. 요는 과히 격렬한 운동도 아니면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오락이자 스포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

련된 스포츠외교의 초점은 단순한 이벤트성 퍼포먼스보다는 한국이 겨울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도록 하는데 맞추어야 할 것이다. 흔히 동계스포츠 종목은 부자들의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통신·의료·숙박·관광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요는 긍정적인 국가브랜드를 전파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평창올림픽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 효과를 약 20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2배 수준이다.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 8천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떤 언론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과 IT코리아, 그리고 세계 디자인 공모전을 휩쓸고 있는 한국 디자인에 평창 올림픽을 접목시킨다면 국가 브랜드 상승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국의 신(新) 21세기 전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표명하였다.

이 같은 거대 담론은 잠시 차치하더라도 당장 평창이 겨울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서 부상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도전 10년의 프레임 속에서 평창은 이미 아시아권의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동남아, 중동, 중국, 심지어 일본으로부터도 겨울스포츠 관광객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아스펜처럼 동계올림픽 유치구상과 동일한 시기에 배태되었던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이제는 국제적 명성을 확립함으로써 동계스포츠와 하계음악제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한국호 브랜드의 콘텐츠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나타나는 한국의 새로운 매력점이 우리의 스포츠외교 및 문화외교의 일정 자산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외교**